

現代會計學에 있어서의 理論的 動向

高 承 禧

I 問題의 提起

現代會計學이라고 하는 用語는 近代會計學과 거의 內容의 區別함이 없이 使用되고 있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現在의 時点的인 問題를 強調하기 위하여 그 「現代性」에 특별한 「뉴앙스」를 두고 利用되는 일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近代」(Modern)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生活基盤이 되어 있고, 이미 確立된 價値判斷이나, 그것으로 지탱되어지고 있는 現在의 支配的인 秩序를 말하는 것으로서 약간 回顧的인 色彩를 띄우고 해석된다. 이에 대하여 「現代」(Contemporary)라는 말은 같은 現在를 對象으로 하면서도 그와 함께 時時刻刻으로 變化하여 가는 環境 속에서 問題가 되고 있는 現在의 時点的인 課題의 解決을 장래로 미루는 것으로서, 未來志向的인 內容을 포함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現在」(existing)를 構成하고 있는 社會經濟的인 諸條件은 항상 變化하는 것이므로, 近代會計學이든, 現代會計學이든간에 모두가 進行形으로서 解釋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1960年代에서는 1970年代에 걸쳐서 近代會計學은 現代會計學으로 탈바꿈하였다. 이 時代의 特色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會計理論에 있어서 意慾的으로 深化와 擴張을 이룬 時期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現代會計學의 震源地라 할 수 있는 美國을 例로 들어 보더라도, 1960年代는 우선 Bedford, Devine의 方法論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Moonitz의 公準論에 대한 研究와 經濟學的인 側面에서 Edward Bell의 評價論에 대한 새로운 影響이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여러가지 研究業績이 이루어졌으나, 1966년에 美國會計學會의 ASOBAT가 發表됨으로써 그 절정에 이르렀다. 이것은 마치 1960年代의 會計學에 하나의 總整理를 試圖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後의 會計學 發展에 대한 靑寫眞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後 10年余의 期間 동안 會計學의 動向을 보면, ASOBAT가 考究한 靑寫眞 以上

으로 會計理論은 擴散의 傾向마저 보여 주었다. 특히 1977년에 美國會計學會가 發表한 「會計理論과 理論承認에 관한 報告書」를 보면, 美國에 있어서의 會計學의 움직임이 여러가지 方法論과 各種 論題下에 擴散되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도 남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와 같은 事實에 轉승하여 現代會計學의 意義를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考察하고 그것이 갖는 最近의 理論의 動向을 整理해 보는 것을 基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Ⅰ 學說史的으로 본 ASOBAT의 意義

現代會計學의 「現代性」을 上述한 바와 같이 解釋한다면, 여기서 問題로 삼아야 할 現代會計學의 分水령은 1960年代의 前半으로 劃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그 後에 提起되어 온 많은 問題들은 아직도 未解決의 章이라 할 수가 있다.

美國會計學의 理事會는, 「1936년에 始作된 『一連의 報告書』가 그 目的을 達成한 지금, 學會는 새로운 研究事業에 着手해야 할 때」¹⁾라고 생각하여서 1964年 ASOBAT의 作成委員會를 任命하였다. Bedford, Churchil, Salmonson 등이 參加한 이 委員會의 任務는 今後 長期에 걸친 研究와 教育의 指針으로서 有益한 基礎가 되는 會計理論을 과거의 研究成果나 既成의 概念에 구애받음이 없이, 自由로써 展開시키는 것이었다. 同委員會는 2年間に 걸친 研究檢討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1966年 ASOBAT의 公表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AAA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30년에 걸친 從來의 研究態度에 終止符를 찍고, 基本的인 研究目標을 하나의 次元을 뛰어넘는 學問的인 立場에서 轉換시키려고 했으므로 學說史的 見地에서 보더라도 정말 劃期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後 會計學研究의 方向設定에도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時点에서 「從來의 支配的이었던 理論」이라고 불리웠던 것은 上記한 簡막한 引用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36년에 시작되는 하나의 報告書가 對象으로 되어왔던 것, 즉 會計原則, 특히 大規模의 證券發行會社의 財務諸表의 作成과 公開에 관한 諸基準에서 問題가 된 會計原則은, 實務에의 採用如否를 不問에 부치고, 순수하게 理論的인 研究의 對象으로서 다루어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實務와 混同하기 쉬운 政策的인 思考나 恣意性을 排除하여 學問的인 立場에서 論理的으로 一貫한 會計原則을 提示한다고 하는 目的에서 先導되어 왔다고 하는 意味에서, 理論 그 자체가 實務에 뿌리박은 問題意識에 의하여 補強되고 있다는 事實은 否定할 수 없다. 그러므로 從來의 理論은 會計職業과 不可分の 것으로 展開되어 왔

1) AAA Committe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AA, 1966, P.V. (飯野利夫譯, 「基礎的 會計理論」, 國元書房, 1969, p. iii).

으며, 따라서 거기에 內在되어 있는 概念들은 制度的인 目的에 가장 適合한 것, 즉 美國會計學의 最近 發表報告書²⁾가 明示하고 있는 것처럼, 「原價의 擬着性과 對應原則」을 核으로 하는 메카니즘이다. 즉 이것은 Denzer가 1968년에 단적으로 「歷史的 原價配分모델」³⁾이라고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從來의 理論이 對象으로 하고 있는 會計는 株式會社의 財務會計이고, 原價主義의 會計이며, 基本的으로는 株主에 대한 事後的인 報告의 會計였다. 그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會計情報의 提供을 이 理論의 內部에서 整然하게 論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었다. 따라서 一例로 管理會計는 2次大戰後 隆盛하게 된 意思決定理論이나 OR를 結付시켜서 會計原則을 대상으로 하는 理論과는 전혀 독립적으로 하나의 領域을 形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財務會計의 內部에 있어서도 情報利用者인 投資家의 行動原理가 명백해짐에 따라 歷史的인 原價配分모델에 의해서는 提供할 수 없을 듯 한 會計情報(例컨데 時價情報, 豫測情報, 非財務情報등)의 提供이 강하게 要請되어진다면 理論의 水準에 있어서는 一段 높은 次元에서 綜合적으로 會計概念을 再構成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물론 會計原則을 探究해 가는 過程에서 美國會計學會가 狀況變化에 全然 無關心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예컨데 時價情報의 提供에 관한 勸告의 變化를 본다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進行과 더불어, 取得原價에 의해서는 不可能할 것 같은 企業의 實態를 公開하도록 하는 要求가 점차 강해졌다. 그러나, AAA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48년의 會計原則(改正版)에 관한 追補報告書 第2號(1951)에서 監査對象이 되는 主要財務諸表에 있어서는 原價主義를 維持하면서도 物價變動의 影響을 표시하기 위하여 따로 都實物價指數를 이용한 修正原價主義에 따른, 補足的 財務諸表의 사용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1957년의 會計原則에서는 한층 더 선명하게 「物價變動의 影響을 報告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 改正版에 관한 追補報告書 第1號 및 第2號(모두 1964年)에서는 時價評價가 強調되고, 특히 第2號에서는 在庫資産의 測定에 관하여 取得原價와 換置原價를 並記하는 財務諸表를 採用하는 것이 主張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나중에 ASOBAT가 外部利用者를 위한 會計情報에 관하여 「一般的 勸告」로서 提案한 多元評價報告書의 原型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時點에 이르러서는, 가령 原價記錄이 保有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環境變化에 對處해 가는 過程에서 從來의 會計原則을 改正한다는 議論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基本的인 變更, 즉 그러한 것들을 여러가지 面에서 보아 論理的으로 正常化하기 위한 基本理論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분명했었다.

2) AAA, Statement on Accounting Theory and Theory Acceptance, 1977.

3) Denzer, H. T., Methodological Presuppositions in Financial Accounting Models, Univ. of Florida, 1968.

이렇게 하여 ASOBAT의 制定을 위한 委員會를 구성함에 있어서, AAA가 생각하고 있던 先端의 「새로운 努力」이라함은 分離한 領域, 多様な 情報要求, 提案등을 새로운 次元에서 상호모순 없이 取捨選擇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ASOBAT制定委員會의 任務는 말하자면 하얀 캔버스 위에 「綜合된 會計理論」을 確固하게 한 礎를 그려내는 것이었다. 거기에 成功했는가의 여부는 따로 두고라도, 現代會計學의 系譜를 감안할 때, ASOBAT의 意義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선 評價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것이 登場한 1960年代는 會計學에 있어서 그러한 作業을 不可避하게 했던 時代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Ⅱ 現代 會計理論의 動向

現代會計學에 있어서 새로운 토착이 될 수 있는 理論的인 움직임은 상당히 많다. 原價主義에 대한 時價主義와 같이 財務會計의 基本에 관한 論爭은 마치 끝을 볼 수 없을 만한 것임에 대하여 한 때 隆盛할 듯 하다가도 數年 지나면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들도 있다.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다시금 「上場法人 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이 改正되어 問題點들이 提起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요한 制度의 變更이 이루어지면, 당분간 그에 關심이 集中하는 것도 斯學이 갖는 한 가지 特色이라 할 것이다.

多様な 會計理論의 토착들을 간단하게 整理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라 하겠으나 여기에서는 1960年代 以後를 회고해보려고 하는 바이다. 그리고 現在에 이르는 最近 20年間을 몇개의 期間으로 나누고, 各各 特徵的인 面을 지적하고 따로따로 정리해 볼까 한다.

- (1) 會計公理(公準)論……1960年代 前半
- (2) 會計情報論……1960年代 後半
- (3) 社會的 責任論……1970年代 前半
- (4) 情報評價論……1970年代 後半

이렇게 整理를 試圖하는 理由는, 극히 最近 各各의 期間에 있어서 어떠한 要因이 그 期間을 特徵지을 수 있는 代表的인 主体로서 會計學上의 議論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要因을 綜合的으로 回顧해 보므로써 時間의 흐름 속에 現代會計學의 現時点的인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는 때문이다.

1. 會計公理論(1960年代前半)

最初로 ASOBAT의 制定을 위한 委員會가 任命된 1960年代 前半을 돌아켜보려고 한

다. 이 時代의 主題는 會計公理論(公準論)이라 할 수 있으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會計公理의 概念은 世界 第2次大戰 以前에도 Paton, Gilman, May 등의 文獻에 나타나고 있음을 찾아 볼 수가 있다. 例컨데 Gilman은 會計實體, 貨幣評價, 會計期間이라고 하는 3개의 基本的인 Convention⁴⁾을 내세웠으나 이것들이 歷史的인 過程에서 文字 그대로 慣習的으로 成立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들 Convention이 會計라는 限定된 곳에서만 固有的 意味를 갖는 概念이라고 하여 「會計理論에 있어서의 公理(公準)로서의 地位를 賦與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 그렇지만 第2次大戰 以前에 있어서의 會計公理(公準)의 概念은 대부분의 경우, 會計士의 判斷의 범위를 형성하는 基本的인 假定(assumption)이었다든가, 아니면 理論의 出發點이라고 하는 理由를 붙이고 있었으며, 原則과 公理(公準)과의 關係나 理論體系上에 있어서의 位置設定은 明確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1960年代에 등장한 公準論은 方法論的인 觀點에서 確실한 目的에 따라 그 動機가 賦與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公理(公準)論은 우선 Moonitz에 의하여 砲門이 열렸던 것이다.⁶⁾

Moonitz의 公準論은 그 翌年에 Sprouse와의 連名으로 公刊된 會計原則論과 一体的으로 解釋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究極的으로는 實務를 指導하는 會計原則을 指向한다고 하는 意味에서의 從來의 理論과 大差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志向하는 會計原則이 投資家나 稅務當局에 限定되지 않는 廣範한 利害關係者를 考慮한 「一般會計原則」(broad accounting principles)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企業을 「資源」이라고 하는 意味에서의 富의 管理를 社會로부터 委託된 機關이라고 함으로써, 會計를 貨幣資本의 據出者에 의한 拘束力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資產評價나 收益의 認識에 관하여는 한 층 더 經濟學的인 觀點에 서서 從來의 原價主義, 實現主義에 否定的인 見解를 명확하게 내세웠다는 點에서 분명히 傳統을 超越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것은 公準의 意味, 그 導出의 方法, 公準의 體系와 原則과의 關係에 대하여 方法論的인 觀點에서 行하는 自己의 立場을 明確히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主張의 出現은 第2次大戰 以後에 있어서의 美國經濟의 推移와 無關係하지는 않다. 巨大한 技術革新을 中心으로 하는 企業規模의 擴大는 經濟的 資源을 支配·管理하는 企業의 「利害關係者」의 概念을 主張하고, 從來의 株主에 대한 報告責任을 暗暗裡에 第一義로 하는 會計原則에 歸着시키고 企業의 社會性을 一層 強調하는 「一般會計原則」의 必要性을 痛感하게 한 것임에 틀림 없다. 또한 株主에 의한 投下資本의 事實上 意義가 後退하는 것과 아

4) S. Gilman, Accounting Concepts of Profit, Ronald, 1939.

5) S. Gilman, Ibid., p. 245.

6) M. Moonitz, 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 AICPA, 1961; R. T. Sprouse and M. Moonitz, A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ICPA, 1962.

올려서, 戰後의 持續的인 인프레손의 進行은 資本維持의 觀點에서도 또한 實態開示의 觀點에서도, 原價主義에 基礎를 둔 傳統的인 財務諸表의 機能의 限界를 점점 明白하게 했을 것이다. 더우기, 時價主義의 導入에 의한 評價益 혹은 保有利得의 計上은 當然히 實現概念의 再檢討에 이어져 가게 된다. 會計原則을 改訂해가는 過程에서 AAA의 時價情報에의 志向은 前節에 서도 言及한 바이며, Moonitz自身도, 例컨데 「貨幣單位安全性的 公準」을 否定한 1952年の AIA의 Study Group 報告書⁷⁾에 의한 影響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는 것은 이 報告書를 되풀이 하여 引用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

또 조금 趣旨가 다르긴 하나, 이 時代를 特徵짓는 有力한 理論으로서 Mattessich의 公理的 會計理論을 들지 않으면 안된다.⁸⁾ 그의 理論도 Moontz와 같은 時代的인 背景속에서 釀成되어 온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경우는, 會計原則을 記述함이 없이 分化한 會計概念을 統一的으로 說明하는 會計의 一般의 基礎를 찾는 것에 主된 目的이 있었다. 그래서 우선 그는 目的志向의 인 사람들의 活動에 있어서 變動하지 않을 수 없는 現實的 經濟를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보아, 그 시스템 全體의 期間的인 活動을 어떤 樣式에 따라 數量的으로 描寫하는 하나의 方法을 가리 켜 「會計」라고 하는 名稱을 붙인 것이라는 提案에서 出發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現行 企業會計의 諸시스템은 물론이고, 1950年代의 後半부터 强하게 統合하려고 했던 巨視的 社會 會計의 諸시스템도, 가령 會計職業과는 無緣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會計」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會計를 對象으로 한 觀察에 기초를 두고 一般化함으로써, 모든 主体의 經濟活 動을 測定하는 固有의 方法으로서 會計의 「一般的 基礎」를 우선 導出하여, 이것을 一群의 公 理系에 의하여 表現하려고 한 것이다.

더우기, 社會會計를 다루고 있다고는 해도, Mattessich自身の 意圖는 社會會計 그 自体를 直接 研究의 對象으로는 삼지 않고, 企業會計와 社會會計의 同型性을 確認함으로써 얻은 會計 의 「一般的 基礎」에 當時盛行했던 OR의 諸方法을 結合시켜서, 그가 「計劃會計」라고 이름 붙인 微視的 水準에서의 應用分野를 確立하는데 있었다. 그런 意味에서, 그의 眞正한 目標 是 管理會計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Mattessich가 「一般的 基礎」를 導出함에 있어서 社會會計를 包含한 모든 會計시스템을 「實際로 있는 것」으로서 觀察의 對象으로 했던 것, 換言하면, 그것들은 社會의 必要性에 따라 「一般的 基礎」가 機能分化한 具體的인 所產으 로 하여 다룬데 注目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Mattessich에 의하면 그것들은 모두 社會의 欲求를 充足하는 것으로서 實際로 有效하게 機能하고 있는 會計인 것이다. 이와 같이 다루려

7) AIA, Study Group on Business Income, Changing Concepts of Business Income, Macmillan, 1952.

8) R. Mattessich, "Towards a General and Axiomatic Foundation of Accountancy", Accounting Research, Vol. 8, 1957.

는 次元에서, 그는 가장 빨리 「單一目的 會計시스템」(Monopurpose Accounting System)의 有用성을 主唱한 會計學者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마다 서로 競合하는 會計上의 代替案(例컨데, 社會會計에 있어서의 時價主義에 대하여 企業의 財務會計에 있어서의 原價主義등)을 「一般的 基礎」의 범위내에 矛盾없이 받아들이기 위하여 公理的인 理論形成이라고 하는 참신한 方法論을 採用한 것이다.

이 時代에 公準論을 展開한 學者로서는 Chambers⁹⁾, Prince¹⁰⁾, Churchman¹¹⁾등을 들 수가 있다. 특히 위의 Churchman은 經營科學의 立場에서 會計의 三公理를 提示한 學者라 하겠다. 그들은 모두가 Moonitz와 같고, 歷史的 原價配分모델을 核心으로 하는 傳統的 會計學에 대한 批判者였지만 그 中에는 逆으로 暗暗裡에 Moonitz를 批判하는 立場에서 公準論을 展開한 일리노이大學의 Study Group와 같은 例도 곁들여 들 수가 있다.¹²⁾

어떻든 이 時代는 上述한 바와 같이 傳統을 超越한 새로운 理論의 必要性이 強하게 意識된 時期였으며, 또한 새로운 理論을 展開하기 위해서는 傳統的인 會計 Paradigme에 對抗할 수 있는 理論武裝을 우선 整備할 必要가 있었던 時代였다. 그러므로 見解를 달리 하면, 이 時代는 公準論, 公理論을 基軸으로 한 會計學方法論의 時代였다고 할 수가 있다.

2. 會計情報論(1960年代後半)

公準論, 公理論, 혹은 方法論에 關한 論爭은 드디어 ASOBAT가 公表되기에 이르렀고, 넓은 意味에서의 會計情報論이라는 것으로 集約시키게 된다. 여기서 넓은 意味라고 함은 前述한 바와 같이 ASOBAT가 여러가지 理論을 綜合하는 役割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綜合을 위한 關鍵이었다는 것이 「會計情報」라는 概念이라는 趣旨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ASOBAT는 「情報의 有用性」을 유일한 支柱로 하여 出發하였으며, 이것을 下位概念으로 分割하여, 새로운 會計理論의 基礎가 될 수 있는 4가지의 基準을 提示하였다. 즉, 그것은

- ① 目的適合性 (Relevance)
- ② 檢證可能性 (Verifiability)

9) R. J. Chambers, Towards a General Theory of Accounting, A Reprint of the Annual Endowed Lecture of the Australian Society of Accountants at the University of Adelaide, 1961.

10) R. P. Prince, Extention of the Boundaries of Accounting Theory, Southwestern, 1963.

11) C. W. Churchman, Prediction and Optimal Decision Prentice-Hall, 1961.

12) Study Group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Postulates and Principles, The Univ. of Illinois, 1964.

③ 不偏性 (Freedom from bias)

④ 計量可能性(Quantifiability)

의 네 가지이며, 會計情報基準이라고 불리운다. ASOBAT에 의하면, 會計란 意思決定者에 對하여 위의 四基準을 滿足시키는 經濟的 情報을 提供하는 全過程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四基準이 ASOBAT가 말하는대로 有用性概念으로부터 導出된 것이라면, 意思決定者에게 주어진 經濟的 情報이 그 四基準을 充足시키는 限, 當然히 그것은 有用하게 된다는 것이다. ASOBAT의 理論形成方法이 意思決定·有用性接近法(decision-usefulness approach)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이런 意味에서이다.

아무튼 이 네개의 會計情報基準은 ASOBAT에 있어서 會計理論을 만들어 낸 基礎概念이었다. 同時에 會計情報을 識別하는 基準이고, 實務의 適否를 判斷하는 規範이며, 더우기 새로운 會計方法을 採用할 경우의 論據가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四基準을 充足시킨다고 하는 理由로 時價主義는 原價主義와 對等한 位置를 占하게 되었으며, OR에 의한 計劃情報는 複式簿記에 準한 財務報告情報와 나란히 「會計의 所産」으로서 認識하게 되었다. 이는 「情報」(Information)의 世界라는 廣大한 土壤에 傳統的인 概念을 移植함으로써, 競合하는 諸理論을 綜合함과 同時에 會計의 Service area의 擴充을 目標로 했던 것이다. 이 4개의 基準은 이러한 것을 可能하게 하기 위하여 ASOBAT가 提案한 새로운 會計 Paradngme 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SOBAT 以後의 會計情報論은 거이가 두 개의 方向으로 展開되었다. 그 하나는 情報의 識別問題를 통한 會計測定論에로의 方向이었다.

上述한 4개의 基準은 ASOBAT에 의하면, 會計情報와 非會計情報로 區別하는 基準이라고 하고 있다. 換言하면, 會計領域을 決定하는 基準이기도 하다. 그러나 會計의 擴張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 그것이 示唆하는 廣範한 領域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누구라도 不安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들이 늘 이용하고 있는 經濟的, 數量的인 情報는 거이 모두가 四基準을 充足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不安은 결국 四基準에 의하여 基礎가 되는 會計理論을 充分히 体系化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일어나게 한다. 이러한 點은 ASOBAT의 努力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엇이 會計情報인가」라고 한 情報의 識別論爭이 다시 登場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論議는 결국 會計의 本質을 묻는 論爭에 지나지 않고 確實히 前述한 公準論, 公理論의 延長線上에 놓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會計란 무엇이고, 그것을 對象으로 하는 理論을 어떻게 構成시킬까」라는 方法論의 問題를 항상 포함시키면서 會計情報를 특징지우는 한편, 會計測定論으로 論理를 展開시켜가게 되었다. 물론 ASOBAT以前에도 會計測定論에 대한 關心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ASOBAT가 提起한 情報의 識別問題에서 부터 시작하여 測定의 論理性을 會計理論의 基礎에 두고 體系를 再編成하려고 하는

쪽에 一段 拍車를 가하게 된 것은 事實이다. 結局 그 基本이었던 問題意識은 會計情報에 대한 識別論爭의 하나의 歸結로서 測定の 形態中에 「會計測定の 固有性」을 求하고 그 固有性에 準하여 會計의 機能分化를 試圖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展開方向은 會計情報시스템(AIS)을 設計하는 問題이다. ASOBAT가 當時 一般化되기에 이르렀던 컴퓨터에 의한 情報處理를 前提로 하여 會計實務나 理論을 考慮하고 있었음의 의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AIS에의 志向은 當時 盛行하고 있던 Total System 으로서의 MIS(經營情報시스템)設計의 問題와 一体化하여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우선 AIS와 MIS의 異同을 둘러싸고 展開되었지만, 이것은 곧 經營的 次元에 있어서의 情報識別論爭, 그것에 지나지 않으며, 말하자면 ASOBAT의 當然한 歸結이었다. 結局은, 「理論的 MIS」가 幻想의 시스템으로서 사라져 감과 동시에 綜合的인 AIS도 消去되고, 「電算化된 財務計算시스템」을 意味하는 AIS의 用語만이 남게 되었다. MIS 혹은 綜合的인 AIS가 畫餅(그림의 떡)으로 되어버린 理由는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겠으나, 最大의 原因은 當時의 論爭에서 有用性概念을 근거로 하는 情報의 擴大를 부르짖는 主張만이 先行하고, 그에 對應하는 Data·base를 管理한다고 하는 具體的인 發想이 거이 存在하지 않았다는 點에 있다. Data와 情報의 對應關係는 一對一은 아닌 것이다. 當時에 이미 第3世代의 컴퓨터가 出現하고 있었으므로 綜合 AIS라고 하더라도, Hardware的으로는 거이 無理가 아니었다고 생각되지만, Data base management의 發想을 缺한 Output 擴大의 主張은 方法論의 提示없이 結論만을 期待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電算室은 混亂되고 費用面에서도, 勞力面에서도, 學者가 그려내는 AIS는 마치 幻想의 시스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3. 社會的 責任論(1970年前半)

會計情報論이 많은 論爭點을 總括하지 못한채 드디어 後退한 것은 企業會計原則이나 商法을 위시하는 여러가지 制度改正이 이 時期에 行해졌으며 學界에 關心이 制度的인 面으로 移行하였다고 하는 特殊한 事情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產業界를 둘러싸고 있는 環境의 急激한 變化가 컸음을 否認할 수 없다. 즉, 한 마디로 말하면, 「生活의 質」의 向上을 志向하게 된 社會의 價値觀의 變遷 속에서 暗暗裡에 經濟的 成果를 最大로 하려고 하는 意思決定主體를 想定한 會計情報論은 약간 退色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社會的 價値觀의 變化는 生産의 巨大化에 수반하는 環境破壞의 增大, 大量消費에 由來하는 쓸데없는 浪費, 資源의 制約, 등등에 對한 사람들의 危機感이었고, 1960年代의 後半에서부터 확실해진 하나의 思潮를 形成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石油危機(1973)를 기화로 하여 過剩流動성과 인플레이션·무—드물 背景으로 企業들이 土地나 株式에 投機를 하던

가 主要商品을 買占함으로써 社會의 強한 指彈을 받았던 일은 우리들의 記憶에도 생생하다. 이러한 行爲는 가령 各各의 企業으로 하여금 正當性 있는 변명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變化한 社會의 價値觀에서 본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하여 이 時代의 特色은 利益情報의 提供에 關心을 集中시켜온 會計시스템으로부터 利益을 超越하여 非市場의인 要因도 포함시킨 企業의 「質」에 관한 情報提供을 可能하게 하는 會計시스템으로 話題가 移行되어 온 데 注意를 환기시켰다. 아니면, ASOBAT가 「未來의 會計理論의 構造」로서 막연히 提示하려고 한 「社會的 測定」이라는 問題의 側面이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數量化한다는 現實의인 問題를 갖고 登場한 時期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社會責任會計를 標榜하는 具體的인 提案으로는 美國의 諸學者들에 의하여 社會經濟會計, 社會監査, 社會計劃豫算, 社會影響報告書의 開示 등의 著書가 나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¹³⁾ 여기서 이것들을 다룰 여유는 없으나 主要한 點을 指摘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여기에서 提案된 모델은 費用便益分析을 基本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企業活動의 結果는 貨幣評價에 의한 一元화된 「純便益」의 크기로서 表示된다고 하는 것이다. 確實히 費用과 便益을 對應시켜서 純額을 算出한다고 하는 發想은 簿記計算에 익숙한 會計人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고, 問題가 되는 費用과 便益도 現實的인 收支를 同伴하는 費用·收益보다는 範圍가 넓다. 그러나 費用便益分析은 元來 最大의 效果를 가져오는 代替案을 選擇하기 위한 手段이었으며, 本質的으로 經濟指向型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點을 無視한 機械的인 모델의 適用에 따라 問題가 되고 있는 「社會的 責任」의 內容을 바르게 數量化할 수 있는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支拂한 稅金은 社會에 대한 便益의 提供이며, 消費한 行政費—기스는 社會에 대한 코스트의 賦課이다. 그렇지 않으면, 外部에 대한 寄付金은 社會的인 便益의 提供이라고 한다. 經濟指向型의 分析이라면 이러한 擬制도 正當化 될 것이다. 그러나 數量化해야 할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란 그러한 것은 아니다. 社會가 問題로 되는 바는 企業이 法에 違反함이 없이 바르게 稅金을 支拂했는가이며 혹은 寄付金의 內容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社會責任會計란 歸屬計算에 의하여 利益概念을 擴大한 純便益에 따라 企業을 評價하는데만 머물러 버려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判明되었다. 直面하고 있는 問題는 正말 「質의 數量化」에 관계있는 問題인 것이다. 經濟性을 超越한 次元에서 企業評價의 必要性은 今後도 결코 衰退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點에서 發想의 轉換이 있다면 社會責任會計는 會計學中에서 重要한 意識를 갖는 問題領域으로서 남아있게 될 것이다.

13) 이에 대해서는 山形休司, 社會責任會計論(東京, 同文館, 1977) 및 合崎堅二 編, 社會會計(體系近代會計學·第12卷) 中央經濟社, 1980)에 자세히 說明되고 있다.

4. 情報評價論(1970年代後半)

競合하는多數의會計方法中 利用者の意思決定에 가장 適合한 方法이 選定되어야 한다고 보아, 그 選擇을 위한 客觀的 基準을 찾으려고 하는 研究는 美國에서 社會的 責任會計와 같은 때, 즉 1960年代末頃부터 1970年代 前半에 걸쳐 急速히 增大하였다. 이것은 ASOBAT가 「情報의 有用性概念」에로의 轉換을 試圖한 以上은 當然한 것이었다고 하여, 소위 ASOBAT의 한층 精緻化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研究가 最近에 이르러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注目되게 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70年代 初半에 우리나라에서는 커다란 制度改革(企業會計原則, 財務諸表規則의 改正,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의 制定, 企業公開促進法の 制定 등)가 계속되었으며, 社會的 責任論에 世上의 關心이 集中되었던 때문이라고 하겠다.

會計方法의 正當性을 定하는 基準의 研究는 利用者の 情報에 대한 反應, 즉 利用者の 心理나 行動分析을 基礎로 하는 立場, 證券價格의 變化에 反映되는 特定利用者集團(投資家)이 情報에 대한 反應을 統計的으로 實證하려고 하는 立場, 情報의 純便益을 最大化함을 基로 하는 立場 등이 있다. AAA의 어느 委員會의 報告書는 前二者의 立場을 「意思決定·有用性 接近法」의 範疇에 포함시켰다. 더우기 最初의 立場을 個人으로서의 意思決定者에 重點을 둔 어프로우치 두번째의 것을 市場레벨에 있어서의 意思決定者全體에 重點을 둔 어프로우치로 한다는 式으로 나누어, 最終 것은 意思決定·有用性 接近法과 다른 範疇의 「情報經濟學的 接近法」으로 分類하고 있는 것이다.¹⁴⁾ 이들 어느것에 의하더라도 利用者の 편에서 생각하는 最適情報란 무엇인가를 決定하는 것이라 보아진다.

이러한 最適정보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會計上의 歸結로서는, 그 정보를 생겨나게 하는 方法이 採用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例컨데, 有價證券價格이 어떤 利益정보를 모두 効率的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實證한다고 한다. 이것은 證券市場에 參加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情報利用이라는 것에서 特別의 超過利得을 얻을 수 없는 것을 意味함과 동시에, 證券市場이 全體로서 그 情報의 有用性을 評價하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므로 從來의 個別投資家를 對象하는 것과 같은 情報提供의 方法은 證券市場全體를 對象으로 하는 것과 같이 改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方法의 變動은 會計目的 그 自體의 變更을 主張하는 立場으로 이어져 간다.

現在, 實證的 分析을 基礎로 한 論爭은 오로지 外部利用者를 위한 財務情報의 行方을 中心으로 行해지고 있다. 그러나 會計目的을 變更하려고 하는 정도의 說得力 있는 實證結果를 얻

14) AAA, Statement on Accounting Theory and Theory Acceptance, 1977.

는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이 實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이러한 研究는 從來 전혀 없었던 것만으로도 커다란 試圖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研究上的 成果로 해서도 바람직한 情報가 證券市場의 資金配分을 通하여 經濟全体에 어느만큼의 效果를 미칠 것인가를 分析하는 「理論모델」을 作成하는 可能性이 期待된다.

그러나 그러한 理論目的을 떠나서 實證의 結果, 會計目的의 變更을 主唱하고, 現實的인 會計實務에 무엇인가의 勸告를 行한다고 하는 것이 研究의 目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見解는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라 하겠다. 어떠한 數量모델을 利用한다고 한들, 時價인가 原價인가라는 基本的 問題에 관한 點에서는 現在 技術的으로 實證結果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弱點을 指摘하는 것은 次置하고라도, 이와 같은 方法에 따라서는 例컨데 Littleton이 展開한 바 있는 「實務를 支柱로 하는 理論」을 超克하려는 理講을 얻는 것은 期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問題가 되고 있는 財務報告制度가 投資家保護를 對象으로 하여 온 것은 明白하며, 株主가 證券의 流通市場에서 株式의 賣買에 參加하는 以上, 누구라 하더라도 損害받는 것은 좋지 않다. 機關投資家は 돈벌이 하는 데 責任을 지고 있다. 이런 限에 있어서 投資家は 會計情報를 利用할 것이다. 그러나 「有用性」의 實證을 通한 制度에 對한 變更의 勸告는 그것이 Questionnaire 방식에 의한 것이든 統計的 手法에 의한 것이던간에, 傳統을 뒤집어 엮을 만한 說得力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實證主義라고 하는 것은 元來는 政策的인 提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科學理論을 세우기 위한 方法論이었음을 想起하지 않으면 안된다.

Ⅳ 現代會計學에 있어서 「會計」라는 用語의 意味

上述한 內容들은 現代會計學에 있어서 最近 20年間을 中心으로 새로운 概念追求를 위한 움직임들에 대하여 살펴 본 것이다. 그 동안 정말로 多樣的 論理的 토끼들이 登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會計學이 處한 環境과 關連지으면서 整理해 본 것이 上述한 4가지의 集內된 內容들이었다.

이 네가지의 主題들을 통하여 最近 20年間에 우리들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이었을까? 확실히 從來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精緻한 接近法이나 새로운 解釋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他領域과의 融合도 表面的으로는 점점 進行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內省的인 意味까지 넣어서 말한다면, 上記 4개의 主題들이 變遷한 것은 大地에 뿌리를 박은 한 그루의 巨大한 樹木이 大空을 向하여 떨어나가는 모습이라기 보다는, 異種의 꽃들이 요란한 모습으로 피어 있는 듯이 눈에 비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은 確固한 共通의 「뿌리」를 갖고 있

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린다.

現代會計學中에서 혹시 그와 같은 「뿌리」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ASOBAT로 회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ASOBAT가 存在하는데도 不拘하고, 現代會計學의 狀況을 「한 그루의 樹木」에 비유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ASOBAT가 그 意圖하는 바를 實現하는데 충분한 成功을 거두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앞서 強調한 바와 같이 1960年代는 第2次大戰後에 생긴 여러가지 社會變化가 會計學上에 多様な 影響을 끼쳐 주었던 時代였다. 時價主義會計에의 志向, 企業의 울타리를 넘어서 社會會計의 定着과 綜合化를 向한 발자취, OR에 代表되는 意思決定情報에의 關心, 算盤에 代身하여 卓上의 模型을 現實問題로 應用可能하게 한 컴퓨터의 出現등 이들의 影響은 어느 하나라도 歷史的 原價配分模型에 의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性格의 것들이었다. ASOBAT는 넓어진 「情報」의 世界에 會計概念을 移植함으로써, 上述한 모든 狀況을 포용하는 基礎理論을 展開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ASOBAT는 몇개의 行動目的에 대하여 有用한 情報을 提供하는데 會計의 役割을 設定하고, 有用성을 條件으로 하여 上述한 4개의 會計情報基準을 提示한 것이다.

그러나 理論의 出發點이 되었던 有用性概念은 그것만으로는 情報概念을 說明할 수가 없는 것이다. 確實히 情報의 語意에서 보더라도 「어떤 것이 情報라고 한다면, 그것은 有用하다」고 하는 命題에 있어서, 有用성은 必要條件이고, 어떤 것이 情報라는 것은 有用성을 위한 充分條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逆은 반드시 成立하지 않는다. 따라서 有用성은 情報라는 것의 必要充分條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有用성으로부터 導出된 4개의 基準과 會計情報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ASOBAT는 擴大된 會計의 領域을 明白히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4개의 基準을 充足시키는 情報의 提供活動을 가리켜 會計라고 부르기로 한다」라는 「意味」의 提案 즉 解明(Explication)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자. 그러데 이 解明은 Hempel도 指摘하고 있듯이, 單純한 말과 뜻의 對應에 대한 恣意的인 約束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¹⁵⁾ 그것은 몇 가지 條件을 充足시킴과 동시에, 적어도 우리들의 經驗分析에 矛盾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會計가 갖는 社會的 有用성을 擴張하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ASOBAT가 提案한 廣大한 會計領域에 대하여 무엇인가 經驗에 맞지 않은 部分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ASOBAT 以後에도 여러가지 會計情報基準이 提案되기도 하고, 혹은 基準의 數量化가 試圖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基準은 ASOBAT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會計情報가 갖추어야 할 特性」 즉 本質的으로 Output基準인 것이다. 혹시 會計가 다른 것과 區別할 수 있

15) C. G. Hempel, *Fundamentals of Concept Formation in Empirical Science*, The Univ. of Chicago press, 1952, p. 11.

는 構造的 特性을 가진 人工的 시스템의 特性을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水質基準을 아무리 나열하더라도 都市의 水道라고 하는 巨大한 人工시스템의 構造를 明白히 할 수 없는 것과 똑 같은 것이다.

第2次世界大戰前에 誕生한 近代會計學이 對象으로 하는 會計의 系統의 特性은, 例컨데 Littleton에 의하여 機能論的으로는 資本調達の 社會的 性格에 由來하는 會計責任과, 그 遂行을 위한 企業利潤의 決定이라 하겠고, 構造論的으로는 複式簿記로 유지되어 온 歷史的 原價配分모델이라고 說明된 바 있다.¹⁶⁾ 理論이나 目的을 감싸고 있는 制約的인 色採는 次置하오라도, 이에는 機能과 構造를 一體化한 說明이 있으며, 概念이 明晰함도 있는 것이다. 會計情報基準은 이 系統과 다른 異質의 情報시스템과를 綜合하는 手段으로서는 不充分한 것이었다. 즉, 一般的으로 말한다면 여러가지 情報處理活動이나 測定시스템이 갖는 系統構造에 있어서의 異質性을 目的上에서 抽象的으로 同質化한 Output基準만을 이용하여 마치 同型인 것처럼 보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하겠다.

ASOBAT의 積極的인 提案에도 불구하고 「經驗에 맞지않는 部分」을 느끼는 것은 여기에 原因이 있다고 思料된다. 그리고 혹시 우리들이 共通의 「뿌리」를 즉 擴大된 會計의 明晰한 概念을 아직 共有財産으로서 보는데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1960年代와 같은 狀況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V 結 論

ASOBAT의 制定을 위한 委員會를 任命했던 AAA의 當時의 狀況은 社會的 또는 歷史的으로 보아 올바른 것이었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 會計領域을 擴大하려고 했던 ASOBAT의 努力도 正當하게 評價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方法論的인 不備로 인하여 ASOBAT가 그 後의 研究에 有益한 framework를 充分히 提示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그 不備한 점을 補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理論上으로 나타난 여러가지 토끼들이 그 때의 社會的 要求를 反映한 것이며, 研究者들의 강한 關心을 表明한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理論的 動向을 단순한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다시 한번 方法論을 追求하는 時代的 진통을 겪을 필요가 있다고 思料된다.

여러가지 論題들을 새로운 時代의 Normal Science로서 体系的으로 끈기있게 精緻化해 가기 위한 現代會計學의 paradigm은 時代的 要求에 알맞는 會計概念을 明晰하게 하려는 作業過程

16) A. C. Littleton, Structure of Accounting Theory, AAA, 1953. (大塚俊郎譯, 會計理論의 構造, 東洋經濟新報社, 1955).

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¹⁷⁾ 大學水準에서의 會計教育도 이 paradigm에 의거하여 當然히 再編成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思料된다. 이제 時代가 變遷하고 環境이 一變하게 되어지면, 現在 追求하고 있는 것과는 全然 다른 paradigm이 登場하게 되고, 그것을 出發點으로 하여 會計學이 산뜻하게 衣裳을 갈아입은 새로운 Normal Science로서 다시금 發展할 時代가 올 可能性도 充分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豫想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들 會計學徒들에게 問題가 되는 것은, 우선 時代的 狀況인 것이다.

會計概念을 明晰하게 한다는 것은 研究의 對象을 限定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하물며 研究者의 自由를 빼앗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그것은 다만 多樣한 成果를 feedback시키는 對象을 明確히 하려고 하는 것임을 意味할 뿐이다.

그리고 構造的 特性을 밝히려는 概念의 措定에 따라 擴張된 會計라 하더라도 그 特性에 由來하여 制約받지 않을 수 없는 機能上의 限界가 그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限界를 찾는다는 것은 會計의 社會的인 貢獻可能性을 그 限界內에 가두어 둔다는 것과는 다른 意味다. 機能을 超越한 情報에 대한 社會的 要求가 있을 때는 다른 여하한 시스템과 링크하여 行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足할 것이다. 會計도 아니면 다른 情報시스템도 그와 같은 高次元의 시스템에 있어서의 不可缺의 部分으로 存在함으로써 점점 社會的인 役割을 高潮시켜 가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研究方向이야말로 眞正한 意味에서 學際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社會的으로 보더라도 情報提供活動의 거의 모든 結果를 會計의 所産이라고 보아, 無理한 理論展開를 試圖한다고 하기 보다는 훨씬 生産的이라고 思料되는 바이다.

17) Paradigme과 Normal Science(通常科學)과의 關係는 主로 自然科學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을 會計學的 立場에서 다루는 것도 可能性 있는 일이라 하겠다. (中山茂譯, 「科學革命의 構造」, 1971).

— Summary —

On the Trend of Accounting Theory in Cotemporary Accountancy

Seung-hee Ko

This paper is written in order to arrange a contemporary trend of the accounting theories occurred in recent 20 years.

The potential social consolidation model of accounting places the entity in the context of a national or international socioeconomic system. However, it abstracts from political assumptions about social welfare; it is a non-explicit model of economic behavior. A quite different normative model might be based on the postulates that :

1. The firm is the essential unit in the economic fabric of the nation.
2. The firm accomplishes its goals best through close coordination of its activities with the national economic policies of its environment.

In recent years we have witnessed several attempts to adapt the ideas which management theories have taken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in order to construct models for testing accounting theories. We have referred to the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approaches to the solution of accounting problems. A noteworthy feature of these approaches has been the stimulus which they have given to empirical research on the impact of accounting numbers on investor behavior, as observed in the stock market.

The basic premise of this line of research can be simply stated: Accounting numbers impound exogenous and endogenous phenomena in a form which permits them to be used for prediction. In this sense, financial statements are useful information for marketing desions. Implicit in this premise is the notion of causality, the relationship of a cause to its effect, which underleis much scientific work. It can be expressed as the proposition that specific stimuli will produce standard results under continual attack, and a contemporary view of causality is more modest.

At the beginning of this paper, we drew attention to the necessity to distinguish between percepts and concepts. At the end, we feel obliged to restate this necessity

in term of the conflict between the appearance of things and their reality, which is a constant feature of the human condition. Accounting theory attempts to bring order into a complex and confused set of observations by placing them in the context of a framework or system within which they may be explained.